

고부담언어시험의 인격적 속성 탐구: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신동일 (중앙대학교)

I. 도입

경제사적으로 압축 성장을 이뤘던 국내 모든 사회 영역은 다양한 사유체제가 실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주의와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모더니즘 신념체제 위의 합리주의가 강력한 시대적 풍조이다.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세계화에 기반을 둔 기술만능주의가 시도되면서 효율성이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 기준이다. 블락(Block, 2002) 혹은 카메론(Cameron, 2000)이 지적한 ‘담론의 테크놀로지화’ 역시 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언어교육, 언어시험에 관한 현대적 담론에서도 언어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테크놀로지화시켜야 하고 또 상품적 가치로 운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다양한 현장에서 언어습득과 사용의 사회문화적 맥락, 다양한 학습 목적, 언어학습자의 정체성 속성이 시장 가치의 효율성 논리 안에서 환원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실행하는 언어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담론을 새롭게 생성시키지 못했다. 상품이 된 언어교육, 언어시험 ‘시장’은 결국 전문가들마저 시장의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시킨 양상이다.

본 논문은 생태주의적 대안 담론 등을 참조하면서 근대적 언어교육의 결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래적 목적 담론이 될 수 있는 ‘언어를 통한 인격성의 상실 그리고 창조적 인간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논점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의 언어교육의 관행을 하나님의 창조 중 하나인 언어(공동체)의 타락 국면으로 바라보면서 고부담언어시험이 이러한 시대적 풍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언어도 상품이고 교육도 상품이라는 시대적 풍조를 비판하는 인접 학문영역의 문헌을 폭넓게 고찰하면서 인격적이면서 창조적인 언어와 언어사용자(학습자)의 속성을 성찰하고자 한다.

II. 언어교육의 맥커뮤니케이션(McCommunication) 비판

국내에서는 이미 개체화된 경쟁주의, 경제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어도 하나의 상품이고 기술(technology)이라는 관점이 수용되었고 언어시험을 포함한 모든 교육 영역은 사교육업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시장 논리와 획일적인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의 존재론적 속성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특정언어의 속성(예: 미국 영어, 문어문법, 토익시험의 언어)을 획일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상황이 확장되었다. 언어사용자간에 상호적으로 체감하는 언어능숙도, 언어사용자로서의 자아정체성, 문화적 친밀감이나 대인간 의사소통력 측면에서 보면 언어-사용-학습의 목적과 의미가 충분히 교육현장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블락(2002)은 이러한 전세계적인 언어현상, 교육관행을 맥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으로 비판한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시작된 신앙과 과학의 분리는 언어와 언어교육에 관한 학문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삶과 앎을 분리시킨 연구와 교육전통이 형성된 셈이다. 인간과 언어의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단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었고 언어의 인격성과 사회문화적 차이의

속성이 간과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창 1:26-27) 하나님을 닮은 인간(시 8:5; 롬 8:29)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격적 언어와 분명 함께 존재하지만 인지주의 모형에 크게 의존했던 학계는 언어를 이성적으로 분리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입력과 출력 정보로 이해하곤 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이 언어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를 형성한다면 언어는 하나의 상품이나 경쟁을 위한 무기로 인식되기 보다는 보다 그 자체로서 자아적 존재,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는 공동체적 속성이 있어서 언어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언어정체성은 그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와 인간의 존재론적 공존을 없애고 과학주의, 공학주의 기반으로만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탈인격화시킨다면 창조 계획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고부담언어시험의 반인격성 비판

지금의 언어교육 관행을 타락으로 본다면, 그리고 경제주의, 공리주의, 공학만능주의가 그러한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이상으로 본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세상적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고부담시험에 기반을 둔 교육문화를 비판적으로 지목하면서 국내 학계의 고부담시험에 관한 맹목적 지지와 대중매체의 관용적인 담론체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고부담언어시험은 언어능력을 표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허락했고 언어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언어시험은 권력적 도구로서 선발과 통제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경우가 많았다(McNamara & Roever, 2006; Shohamy, 2001; Spolsky, 1995). 미국의 경우, 1920년대에 대형산업으로 등장한 시험 출판업체가 선다형 시험문항을 사용하면서 표준화된 언어시험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고, 이 때부터 접근용이성, 객관성, 과학성은 시험 개발과 시행에 중요한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준화된 시험은 교육과정인 교재 관리, 교사 선발, 혹은 학교를 개혁하는 행정기법으로 빈번히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미국 정부는 낙오아동방지(No Child Left Behind)법을 시행하며 표준화된 고부담시험에 힘을 실어주며 학교, 교사, 학생의 성취도를 표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부담언어시험의 역류(washback)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언어평가자들과 언어시험의 사회적 실행력을 지지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그러나 진학, 졸업, 취업, 배치 등 언어시험의 의사결정력이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질 때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teaching to the test)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교육주체들은 언어(사용)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한 언어교육 혹은 시험의 모양과 절차를 충분히 성찰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시험에 등장하는 언어는 실제 언어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이고 왜곡된 언어학습을 부추길 뿐 아니라 언어정체성과 언어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McNamara & Roever, 2006; Shohamy, 2001).

대중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고부담언어시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경제주의 혹은 공리주의 담론을 유포하고 있다(신동일, 2012). 시장방임적 태도, 계량적 공리성, 사회적 편의성 단면에 지면을 대부분 할애하다 보니 특정 집단,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려가 제한되고 언어교육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성, 편의성로만 언어, 언어교육, 고부담언어시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을 멈춘 것이다. 의사소통적이고 놀이(Cook, 2000)적이며, 상호평등(van Lier, 1989)이면서 즉흥성과 인격적 교제를 허락하는 생태적 언어학습(Kramersch, 2002; van Lier, 2004)의 필요성은 이미 기독교지성 밖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 기독교자들은 고부담시험의 탈맥락, 위협성, 반인격성, 비공동체적 속성을 고발하며 고부담시험의 권한 위임 혹은 대안적 평가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언어의 본질성 회복, 언어교육의 목적성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인간의 언어 그리고 습득/사용의 모양은 어떠할까? 아마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면서 누구나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인권의 기초, 랍비나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고 모두가 형제라는 평등의 선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개혁의 마음에 창조적이고 인격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2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기쁨, 교제, 인격, 인권, 평등, 개혁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공동체를 허락하고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 언어, 언어사용, 언어학습, 언어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대안적 담론을 제시할 때이다.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을 전문가들이 신앙과 학문적 소신 위에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언어를 교육시키는 지금의 시대 풍조는 어린 학습자를 더욱 객체화시키고, 전인격적 단면에 대한 관심보다 제한된 인지능력을 강조하면서 공학적인 매체 위에서만 혹은 경쟁적 시험 상황에서만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재단할 것이다.

V. 참고문헌

- 신동일. (2012). 토폴대란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 비판적담론분석을 기반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1), 187-210.
- Block, D. (2002). McCommunication: A problem in the frame of SLA. In D. Block & D. Cameron (Eds.), *Globalization and language teaching*. (pp. 117-133). London: Routledge.
- Cameron, D. (2000). *Good to talk: Living and working in a communication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
- Cook, G. *Language play and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mersch, C. (2002). (Ed.)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socialization: Ec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ntinuum.
- McNamara, T., & Roever, C. (2006).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 MA& Oxford: Blackwell.
- Shohamy, E. (2001). *The power of test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uses of language tests*. London: Longman/Pearson Education.
- Spolsky, B. (1995). *Measured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Lier, L. (1989). Reeling, writhing, drawing, and fainting in coils: Oral proficiency interview as conversation. *TESOL Quarterly*, 23(3), 489-508.

van Lier, L. (2004). *The ecology and semiotics of language learning: A sociocultural perspective*.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